

후회인가? 회개인가? (1)

이 정엽 목사
(뉴비전교회/214-534-7141)

성도는 회개로 부름 받은 자이지 뉘우침으로 끝낼 인생이 아니다. 불신자는 후회로 끝나지만 성도는 회개하며 변화된 삶을 사는 자이다. 나는 후회하는 자인가? 회개하는 자인가? 후회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회개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시작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 끝을 맺는다.

가롯 유다를 보라! 가롯 유다가 언제 목매달아 죽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직 심문을 받고 있는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언제 가롯 유다가 자신의 죄를 뉘우쳤는가? 예수님께서 잡히신 그 다음날이다. 예수님을 팔고 몇 시간도 안되어 뉘우친 것이다. 뉘우치게 된 동기는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마 27:3)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죄인으로서 선고됨을 목격하고 후회한 것이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나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든지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관찰하였다. 사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고자 한 자이다. 어쩌면 종교지도자들에게 팔아넘긴 것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기고 스스로 그들 위에 군림할지도 모른다는 반전을 기대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없이 종교지도자들로부터 죄인으로 정죄되고, 빌라도 총독 앞에 결박당하여 넘겨진 것을 보는 순간 가롯 유다의 기대와 야망은 물거품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아직 살아계신 상황이고, 자신의 죄도 알고 뉘우친 가롯 유다는 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지 않았던 것인가? 그토록 죄인들을 용서해주신 예수님이신 것을 그가 몰랐던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 받은 돈을 돌려주는 용기를 낸 그라면 왜 빌라도 총독 앞에 나아가 무죄한 자를 팔았다고 증언하지 않았는가? 자신의 죄를 참으로 뉘우친 자라고 한다면 그 래야 마땅하지 않는가?

그러나 오직 자신에게 집중된 그것기에 죄 없으신 스승을 판 자신의 죄악된 행위만 부각되어 자신을 괴롭혔던 것이다. 동료 제자들의 따가운 눈초리와 예수님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생각하니 도무지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살 가치가 없는 자로 스스로 정죄하며 목숨을 끊은 것이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자신이 지은 죄를 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으로 자신이 지은 죄값을 치루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가롯 유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의 저변은 항상 “나”였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나로 충만한 사람은 후회는 해도 회개를 하지 않는다.

왜 가롯 유다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는 것으로 대신한 것일까? 자기를 못 버렸기 때문이다. 죄는 자존심이다. 나를 내세우기 때문에 회개치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나의 죄를 용서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기억치도 않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치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나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저변에 자리잡고 있는 죄의 근성이다. 그래서 좀처럼 회개하지 않는다. 대신에 무엇을 하는가? 자기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그 죄값을 내가 대신 지고, 내가 고통을 받겠다고 한다. 그래서 나중에 떳떳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만 하면 나오겠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고, 내 양심이 허락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죄란 일차적으로 하나님께 범한 것이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그분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그런데 뉘우침으로 끝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과 사람들 앞에서 나의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뉘우침으로 일관한다. 뉘우침을 통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한다. 혹시 나도 이런 자는 아닌가? 지은 죄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며 밤잠을 설치며 울며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심지어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이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자. 하나님은 뉘우치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찾으시고 용서해주신다.